



고령자의 인지능력 및 금융이해력과 금융자문 수요

변혜원 연구위원

연구

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은퇴 후 생존기간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의 금융의사결정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 고령자의 금융의사결정을 분석한 기존연구는 많은 고령자가 금융관리를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였는데, 고령으로 갈수록 치매나 인지장애를 겪을 확률이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투자기술이 악화되거나 대출시장에서의 의사결정에서도 실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Kim et al.(2019)은 고령자의 금융행태 중 금융자문 이용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고령자의 인지능력과 금융이해력이 금융자문 사용여부 결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선택하는 금융자문의 종류나 품질을 선택하는 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 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은퇴 후 생존기간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의 금융의사결정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¹⁾
 - 금융상품 선택이나 운용, 특히 은퇴소득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었으며, 의사결정의 복잡성도 심화되었음
 - 기존 연구는 젊은 성인도 금융의사결정에서 많은 실수를 하지만, 고령자가 젊은 성인에 비해 더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관리 실패에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고령자의 금융의사결정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설명함²⁾
 - 아울러 상당한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는 투자사기에 피해를 입을 확률도 더 높다고 보고됨³⁾

- 미국 고령자의 금융의사결정을 분석한 Agarwal et al.(2009)은 많은 고령자가 금융관리를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임

1) Agarwal et al.(2009); Korniotis and Kumar(2011); Lindeboom and Melnychuk(2015); Mazzonna and Peracchi (2018)
 2) Agarwal et al.(2009)
 3) Kieffer and Mottola(2016); DeLiema et al.(2017)

- 이들은 미국의 80세에서 89세 사이의 인구 중 약 50%가 치매진단을 받았거나 치매가 아니더라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과 연령 증가에 따른 인지능력 감소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지적함
 - 또한 대출 결정 시 중년 성인이 젊은 성인이나 고령자에 비해 실수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대출수수료 및 이자비용이 53세 근처에서 최저점을 보이는 U자 형태를 보임
- 한편 Korniotis and Kumar(2011)는 투자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포트폴리오 선택 시 경험법칙을 더 많이 활용했지만, 투자기술은 인지노령화의 부작용으로 인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악화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함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자가 인지노령화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재무자문가나 다른 자격을 갖춘 투자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는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영향을 경감시킬 것을 제안함
 - 인지노령화의 부작용을 강조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투자 단기재교육이 투자기술 악화를 완화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함
- Kim et al.(2019)은 인지능력 및 금융이해력과 노령기의 금융자문 이용 행태 간의 관계를 분석함
- 이들은 2016년 HRS(Health and Retirement Survey)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함
 - 50세 이상 1,18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금융자문 이용 여부와 금융자문의 종류, 금융자문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한 설문응답을 사용함
 - 아울러 인지능력 점수는 단어기억과 정신상태 지수의 합으로 측정되었는데, 정신상태 지수는 순차적 뺄셈⁴⁾, 거꾸로 숫자세기, 이름대기 테스트, 단어 질문 등으로 계산됨
 - 마지막으로 금융이해력은 네 가지 금융이해력질문에 대한 정답 수를 사용함
- 분석 결과, 고령자의 인지능력과 금융이해력이 금융자문 사용여부 결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선택하는 금융자문의 종류나 품질을 선택하는 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 금융자문을 구하는 사람의 경우, 인지능력이 높을수록 단순한 업무보다는 투자자문과 같은 조금 더 복잡한 금융자문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인지능력과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을수록 전문 금융자문사의 자문을 받을 확률이 높은 반면, 무료 금융자문을 받을 확률이 낮았음
 - 또한 인지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금융자문사에 대한 불신이 금융자문을 피하는 이유일 확률이 높았음
 - 인지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무료 재무자문을 받을 확률이 낮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높은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는 금융자문에 대해 더 신중한 태도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음 **kiri**

4) HRS가 사용한 Serial 7's Test라고 불리는 순차적 뺄셈은 100에서 7을 순차적으로 빼나가는 테스트인데, 정신적 기능을 점검하는 방법임

참고문헌



- Agarwal, S., J. Driscoll, X. Gabaix, and D. Laibson(2009), “The Age of Reason: Financial Decisions over the Life-cycle with Implications for Regulat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s Activity*, 2, pp. 51~117
- DeLiema, M., G. Mottola, and M. Deevy(2017), “Findings from a Pilot Study to Measure Financial Fraud in the United States”, Stanford Center on Longevity and FINRA
- Kieffer, C. and G. Mottola(2016), “Understanding and Combating Investment Fraud”, Pension Research Council Working Paper No. 2016-19, University of Pennsylvania
- Kim, H., R. Maurer, and O. Mitchell(2019), “How Cognitive Ability and Financial Literacy Shape the Demand for Financial Advice at Older Ages”, NBER Working Paper No. 25750
- Korniotis, G. and A. Kumar(2011), “Do Older Investors Make Better Investment Decision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3(1), pp. 244~265
- Lindeboom, M. and M. Melnychuk(2015), “Mental Health and Asset Choices”, *Annals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19/120, pp. 65~94
- Mazzonna F. and F. Peracchi(2018), “Self-assessed Cognitive Ability and Financial Wealth: Are People Aware of Their Cognitive Decline?”, EIEF Working Paper, 18/08
- Mitchell, O., P. Hammond, and S. Utkus(2017), *Financial Decision Making and Retirement Security in an Aging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